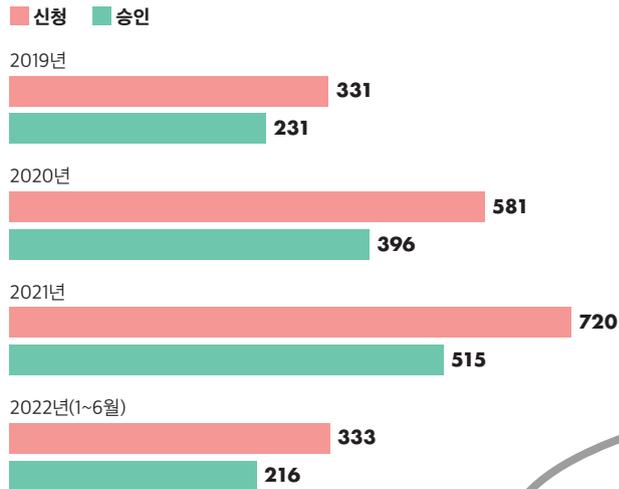


## 데이터로 읽는 직업트라우마

정신질환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

단위 : 건(자살 포함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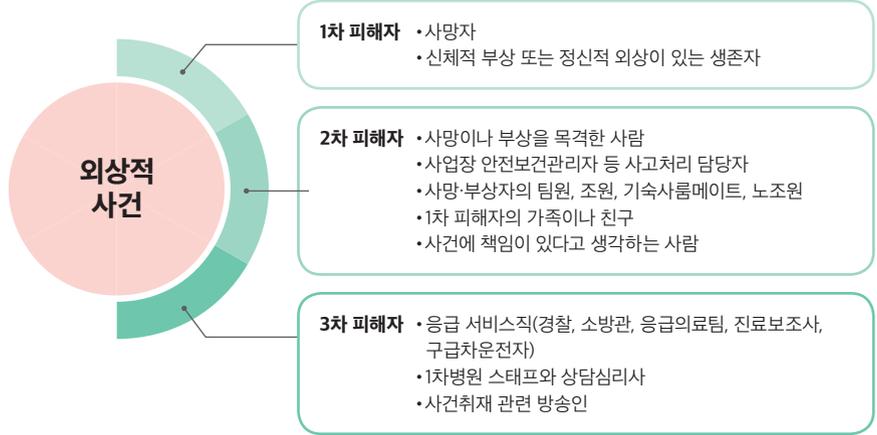
출처 : 근로복지공단

산재 인정받은 정신질환



### 직업트라우마로 회사 가기 무서운 노동자들

직업트라우마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.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 징후가 감지될 때 당시의 기억이 강화되는데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야 하는 노동자들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상황들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. 트라우마가 강화된다면 노동자들은 우울증·불안 장애·수면 장애·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며, 심지어 자살로도 이어진다. 지난 3년 사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직업트라우마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트라우마 관리의 중요성을 방증하고 있다.



[외상적 사건의 피해자 범위] 출처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# 2023 전국 직업트라우마센터 현황



출처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# 정신적 피해 범위가 넓은 직업트라우마

직업트라우마는 업무 중 사고를 직접 당하거나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에 국한되지 않는다. 사고 발생에 직·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노동자, 평소 피해자와 친밀감이 두터웠던 동료에게까지 미치는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크다. 피해 노동자의 범위가 넓고, 그 충격과 회복하는 과정이 노동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료 간에 갈등의 소지도 빈번하다. 그런데도 신체적 피해와 다르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바가 없어 트라우마로 인한 내상은 오롯이 피해자 본인의 몫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.

### 노동자의 일상 회복 돕는 직업트라우마센터

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삼성중공업 중대재해 생존 노동자들의 심리상담을 계기로 2018년 직업트라우마센터의 문을 열었다. 정신보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상담프로그램 및 사후 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3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. 중대재해를 목격한 노동자뿐 아니라, 동료의 자살이나 직장 내 괴롭힘,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등이 발생한 사업장의 재해자, 목격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이 진행되고 있지만, 센터 개수와 전문인력이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. 🗣️